

# 태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 제안

- 이용 통계와 학생 설문을 바탕으로

2023 년 07 월 17 일

한성과학고등학교 3 학년 2 반 1 번

김 수 진

## 목차

### I. 탐구의 목적

### II. 우리 학교 도서관 현황

1. 개요
2. 이용 현황 (2022학년도)
3. 연간 이용률 및 예산액 변화
4. 도서관 시설 현황 및 평가

### III. 공간 구성 평가

### IV. 학생 대상 설문

1. 도서관 이용 경험
2. 도서관 인식
3. 현재 도서관 평가
4. 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동아리 운영에 대한 의견
5. 우리 학교 도서관의 장단점 / 개선 방향

### V. 제안

1. 개선 사업의 방향
2. 공간 구성
3. 도서관 경영

### VI. 마치며

## I. 탐구의 목적

학교도서관은 독서, 질문, 조사연구, 사고력, 상상력 등 창의성을 발휘하는 장소이며, 학생들에게 정보에서 지식으로의 여행과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성장을 돕는 핵심 공간이다.<sup>[1]</sup>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복지 환경<sup>[2]</sup>인 도서관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요즘 의미가 더 커진다.

학교 도서관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도서관, 한성과학고등학교 태하도서관(이하 '학교도서관') 인기가 많지 않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표, 매뉴얼 등이 많지만 모두 과학고등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학교 도서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 처리 전 원본 자료와 사용한 사진은 깃허브 [https://github.com/Sujin-Github/hssh\\_library](https://github.com/Sujin-Github/hssh_libra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I. 학교도서관 현황

### 1. 개요



- |                    |                     |          |
|--------------------|---------------------|----------|
| 1 태하관 입구           | 6 비도서 자료            | 11 신착 도서 |
| 2 도서관 입구           | 7 우수논문집/정기간행물/방송 장비 | 12 교과서 등 |
| 3 도서 반납·대출기/도서 소독기 | 8 서고 입구             | 13 세미나실1 |
| 4 컬러프린터            | 9 서고                | 소화기      |
| 5 정보검색대/흑백프린터      | 10 십진분류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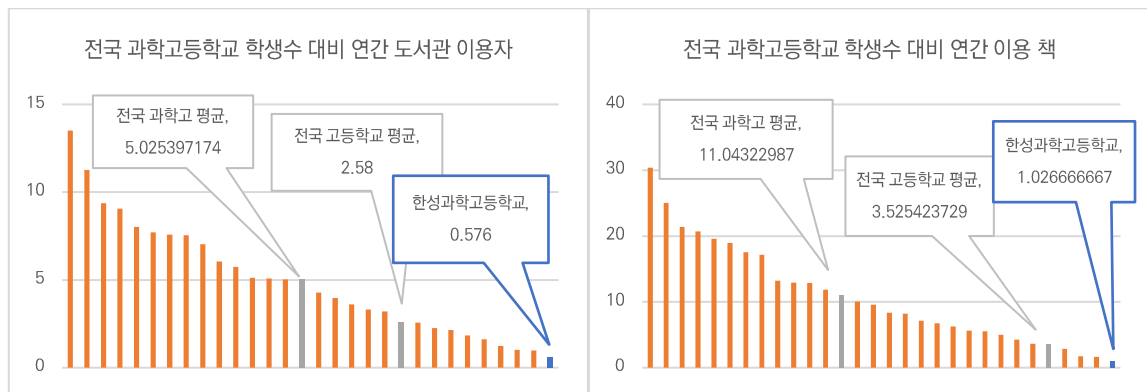
우리 도서관은 학교는 태하관 2층에 위치해 있다. 그 구조는 위 지도와 같다. 도서 열람 및 대출, 자습, 자료 검색, 인터넷 강의 시청, 복사·프린트 등이 가능하다. 개관 시간은 월-목 12:00~20:00 (8시간), 금·기·속사 미 운영 시 08:00~16:00 (8시간)이다. 방학엔 개방하지 않는다. 대출은 1인 7일간 3권까지 가능하다. 시설은 아래 “도서관 평가” 항목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다.

## 2.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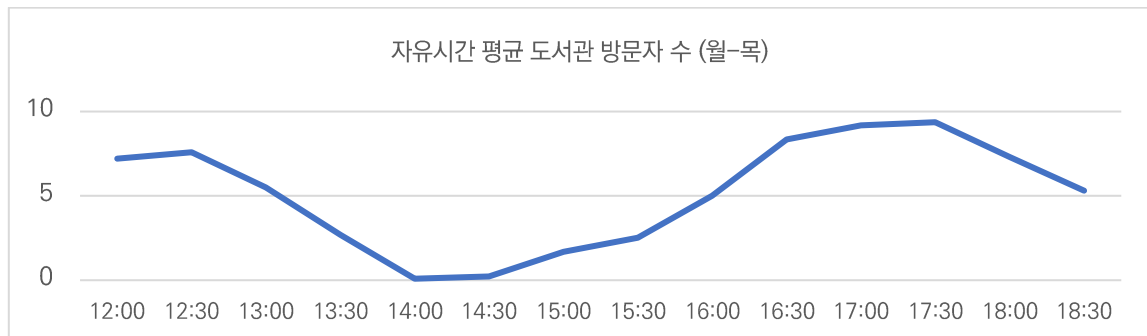
학생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언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②, ③은 도서 담당 교사 류병기 선생님께 자료를 받아 사용했다.

### ① 전체 이용자

유·초·중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sup>[3]</sup>에 따르면 2022년에는 1년 동안 216명이 385권의 책을 이용했다. 전교생 수로 나누어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보면 전국 2374개 고등학교 중 2033위며, 전국 과학고등학교 28개교 중 28위로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아래 그래프는 전국 과학고등학교를 (연간 이용자 수/학생 수)와 (연간 이용 책 권 수/학생 수) 순위대로 나열한 것이다.



### ② 자유 시간 이용 현황



2023년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월요일~목요일의 자유 시간(점심시간부터 자습 시간 전)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를 평균 낸 결과는 위와 같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은 5시 30분에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10명을 넘지 않는다. 중간고사 직전이었던 4월 17일~21일에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최대 20명이 같은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했다.

### ③ 자습 시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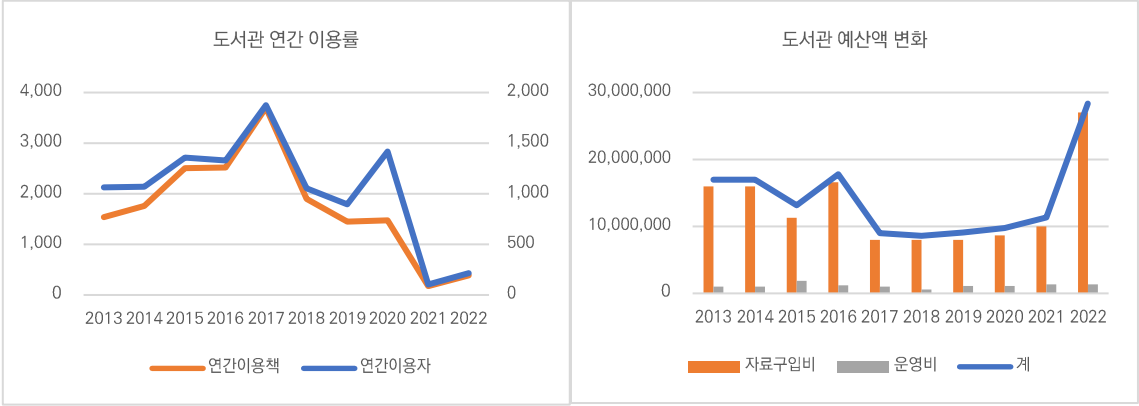
자습 시간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4.7 명의 학생이 이용했다. (2023.03.08~2023.05.10) 자습 시간 또한 시험 기간에 이용자가 증가했다. 인원수의 최대는 14명, 최소는 1명이었다.

요일	월	화	수	목	평균
인원	3.3	5.6	4.3	5.7	4.7

### ④ 희망 도서 신청 현황

우리 학교는 학기별로, 그리고 인문 사회 정보부 게시판을 통해 상시로 희망 도서를 받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즉 2022학년도 2학기에 총 190권의 희망 도서가 들어왔다. 하지만 이 중 정기간행물과 멘토링 도서를 포함한 교사 신청이 181권이다. 즉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신청한 희망 도서는 9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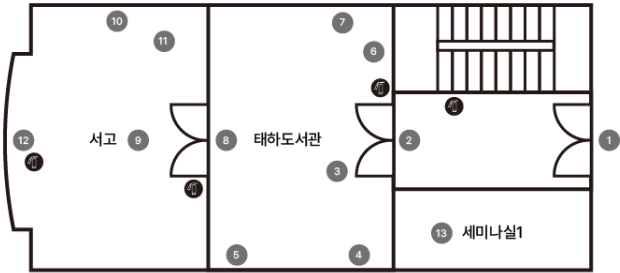
### 3. 연간 이용률 및 예산액 변화



유·초·중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22학년도까지 도서관 연간 이용률(이용자 수, 이용 책)과 예산액을 살펴보았다. 10년간 도서관 이용자 수와 대출 권수 변화 및 책정 예산의 변화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2022년 기준 89권으로 매우 많은 축에 속한다.<sup>[4]</sup>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전국 2374개교 중 326위, 1인당 예산은 389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2022년 기준). 우리 학교의 낮은 도서관 이용률은 단순히 예산이나 장서가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III. 공간 구성 평가

학교 도서관 공간 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sup>[5] [6]</sup>를 참고해 도서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서관 입구는 두 개의 문을 거쳐야 하고, 학생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

지만, 태하관 전체에 여자 화장실이 없다. 도서관이나 방학 방과후로 자습실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 도서관 입구 바깥에 신착도서 소개와 이용 안내가 붙어있는 게시판이 있다. 문 옆에 위치해 지나가면서 읽기 어렵고 크기가 작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열람/자습을 할 수 있는 좌석수는 약 30석이다. 도서관 활용 수업을 할 수 있는 빔프로젝터와 마이크·앰프 등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공간의 분리·이동성이 낮다. 열람 공간과 서고는 유리 벽으로 분리되어 있다. 점심시간에 방문했을 때 서가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직접 들어가서 불을 켜야 했다.



서고 내부는 서가가 쪽 늘어선 모습이다. 서가의 여유 공간은 분류마다 달랐으나 30% 미만으로 보이는 곳이 많았다. 문 쪽에는 주로 5단 서가가, 안쪽에는 6단 서가가 놓여있다. 서가 사이 간격은 75cm~80cm로 좁았다.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유효 폭 1.2m 이상의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청구 기호는 서가의 벽면에 붙어있으며 분류에 대한 설명 없이 숫자만 적혀 있었다. 청구기호를 읽는 데 참고할 십진분류표는 서고 안쪽 끝 벽에 붙어 있어 눈에 띄지 않았다.





서고 내부는 대체로 어두웠고, 특히 조명이 없는 가장자리 공간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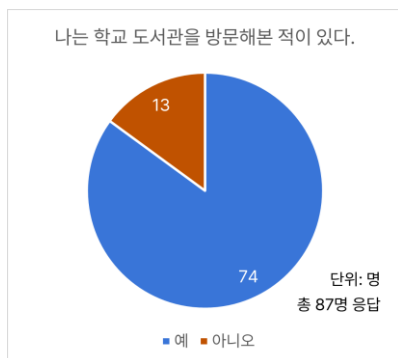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6항에 따르면 소화 기구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⑨서고 입구 쪽 소화기는 눈에 잘 띄지 않을뿐더러, 표지도 서고 바깥에 낮게 붙어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 IV. 학생 대상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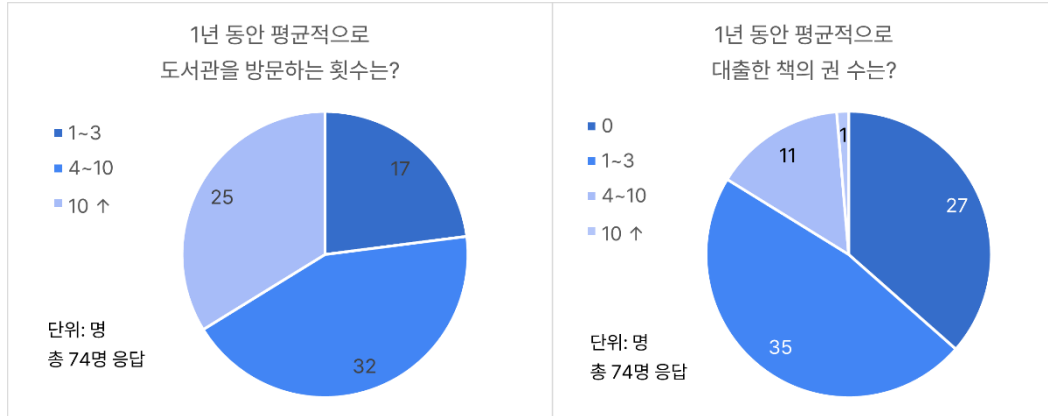
도서관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사용자, 즉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의견을 직접 묻기 위해 전교생 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총 87명이 참여했다. 1학년 36명, 2학년 30명, 3학년 21명으로 인원수와 비슷한 비율로 조사에 참여했다.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에 대한 인식, 현재 도서관 평가, 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동아리에 대한 인식 등을 물었다.

##### 1. 도서관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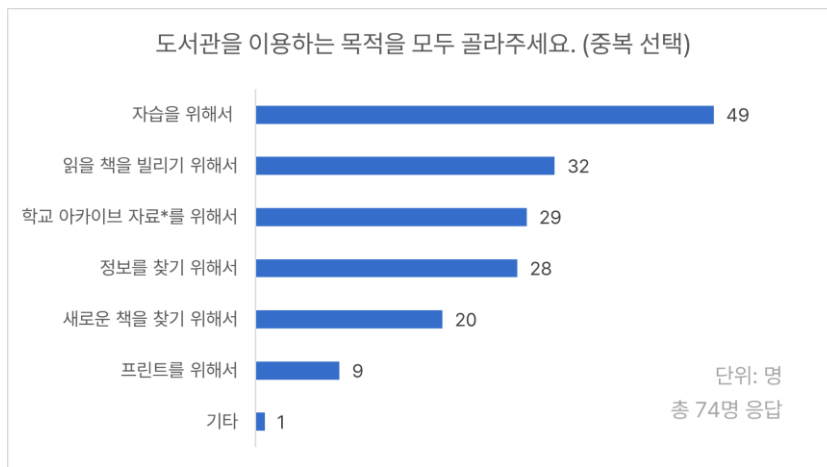


도서관 형태	학교 도서관 (오프라인)	전자 도서관
이용 경험 있음 (중복 선택)	74	18

응답자 중 약 15%가 방문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방문한 적 있는 학생 74명 모두는 오프라인 학교 도서관에 방문했으며, 그 중 18명이 전자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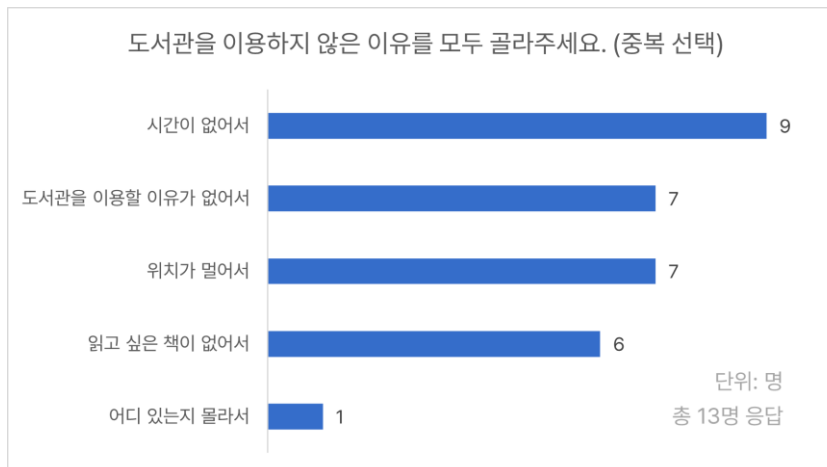


방문 경험이 있는 7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방문 횟수와 대출 권수를 조사했다. 약 47%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도 책을 대출하지 않았다.



\* 학교 아카이브 자료: 기출문제, 우수논문집, 교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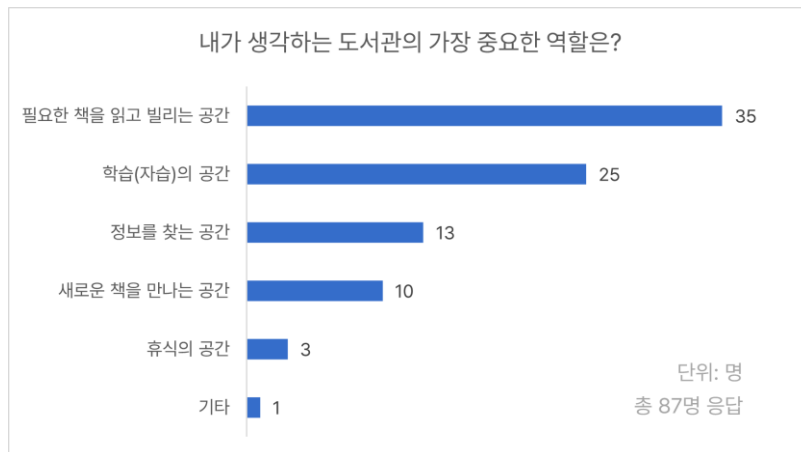
도서관을 이용해본 74명의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을 묻은 결과는 위와 같다. 방문횟수에 비해 대출 권수가 적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자습을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이 약 66%로 가장 많았다.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13명은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위와 같이 답했다. 약 70%가 '시간이 없어서', 약 50%가 '도서관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위치가 멀어서'를 선택했다.

## 2. 도서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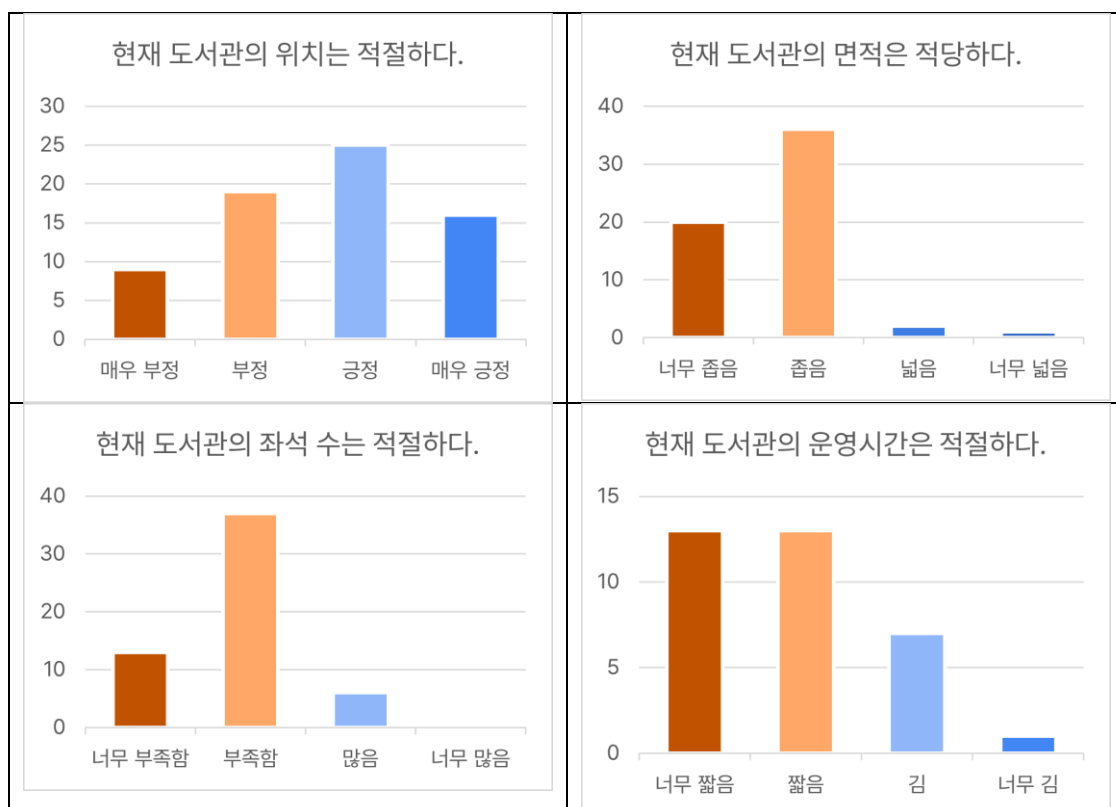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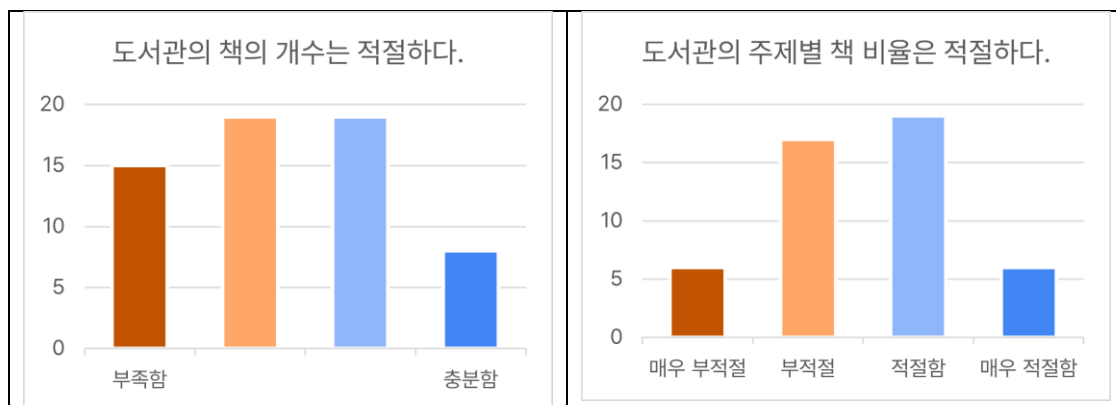


도서관의 여러 역할 중 학생들이 무엇을 가장 우선하는지 조사했다. 책과 독서 공간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학습(자습), 정보 탐색, 새로운 책을 접하는 것, 휴식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 자습이 대부분이었지만, 도서관은 독서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3. 현재 도서관 평가

선형 배율로 1~5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보통 (3)을 기권으로 사용해 가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겠는 경우를 통계에서 제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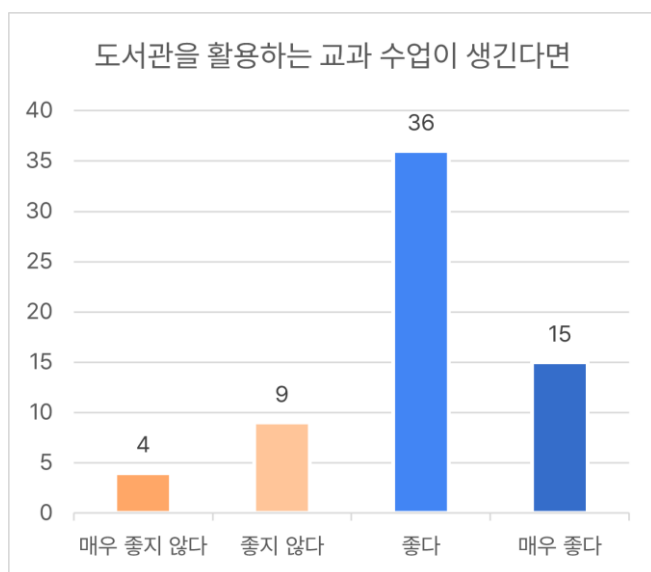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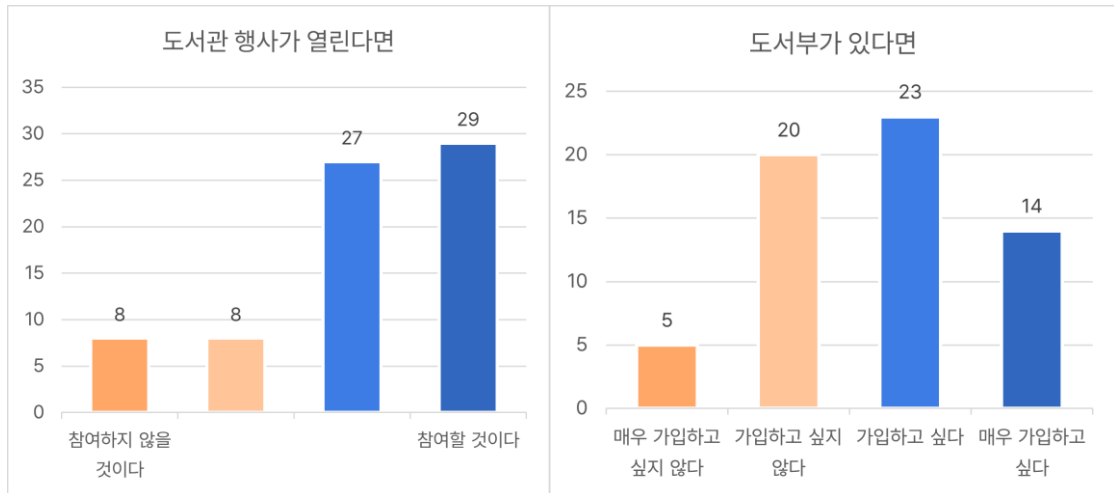
면적은 '너무 좁다'부터 '너무 넓다'로, 좌석 수는 '너무 부족하다'와 '너무 많다'로, 운영 시간은 '너무 짧다'와 '너무 길다'를 각각 1과 5로 해 조사했다. 그 결과 압도적으로 면적이 좁고, 좌석 수가 부족하며 운영 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치, 장서 수, 장서 비율은 '적절하다'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은 대부분 '본관/자습실과 거리가 멀다', '외진 곳에 있다', '입구의 경사로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여학생은 태하관을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 4. 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동아리 운영에 대한 의견



도서관을 활용하는 교과 수업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좋다'와 '매우 좋다'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4,5) 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평소 책을 안 읽는데 수업을 통해 책을 접할 수 있어서', '도서관 장서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본 적이 없어 위치를 몰랐어서' 등을 들었다. 부정적(1,2)이었던 학생들은 '현재 도서관이 좁고 시설이 열악해 수업하기 힘들 것 같아서', '본관에서 너무 멀어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활용 수업 자체에 대한 반감보다는 도서관의 위치와 규모로 인해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이 많았다.



도서관 행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서관이 생긴다면 가입하고 싶은지를 물어본 결과 ‘가입하고 싶다’에 답한 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 5. 우리 학교 도서관의 장단점 / 개선 방향

우리학교 도서관의 장점과 단점, 개선 방향을 주관식으로 조사했다. 장점에 49명, 단점에 47명, 개선 방향에 37명이 답했다.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장점	
조용하다/자습하기 좋다.	18
전문 서적이 많다.	8
도서가 많고 다양하다.	7
학교 아카이브 자료가 좋다	4
콘센트 등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2
사서선생님께서 친절하시다	2
겨울에 따뜻하다	2
자료 보존이 잘 되어 있다	2
기타	5

우리 학교 도서관의 단점	
좁다	18
책이 부족하다	8
위치가 멀다	6
운영 시간이 짧다	4
좌석이 부족하다	4
자습 목적 외 활용이 안 되고 있다	3

서고가 분리되어 있다	2
장서 비율이 편향적이다	2
조명이 어둡다	2
소란스럽다	2
기타	9

개선 방향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분야	의견 수	의견 요약
인테리어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고가 좁고 분리되어 있어 자유롭게 책을 찾으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유리벽을 없애서 접근성을 높이면 좋겠다.</li> <li>· 도서관의 모습이 90년대 같다. 현대화가 필요해 보인다.</li> <li>·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다.</li> <li>· 편하게 책을 읽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li> <li>· 딱딱한 디자인이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밝고 따뜻한 느낌이 되면 좋겠다.</li> </ul>
장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래된 책이 많다. 최근 나온 도서가 많으면 좋겠다.</li> <li>· 여러 분야의 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문학, 영어 소설 등)</li> <li>· 전자도서관에 더 다양한 책들이 등록되었으면 좋겠다.</li> </ul>
면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li> </ul>
활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가 적다.</li> <li>· 신간도서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li> <li>· 도서관 행사를 열거나 한어울제에 활용하면 더 친숙한 장소가 될 것 같다.</li> <li>· 자습 목적 외에도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면 좋겠다.</li> </ul>
위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멀다.</li> <li>· 가는 길을 쉽게 해주면 좋겠다.</li> </ul>
운영 시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습 2교시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다.</li> <li>· 아침, 저녁으로 운영 시간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li> </ul>
시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li> <li>·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 책상에 의자가 다 들어가지 않아 불편하다.</li> </ul>
방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을 사용하는 목적(매우 조용한 자습 및 독서)을 분명히 하여 공지가 있으면 좋겠다.</li> <li>· 방음이 더 잘 되는 문으로 바꾸면 좋겠다.</li> </ul>
기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를 모른다. 신입생 교육 등에서 위치를 알려주면 좋겠다.</li> </ul>

## V. 제안

### 1. 개선 사업의 방향

‘컨셉이 없다’는 것이 지금 도서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습은 자습실에서, 토의는 한빛컴퓨터에서, 와이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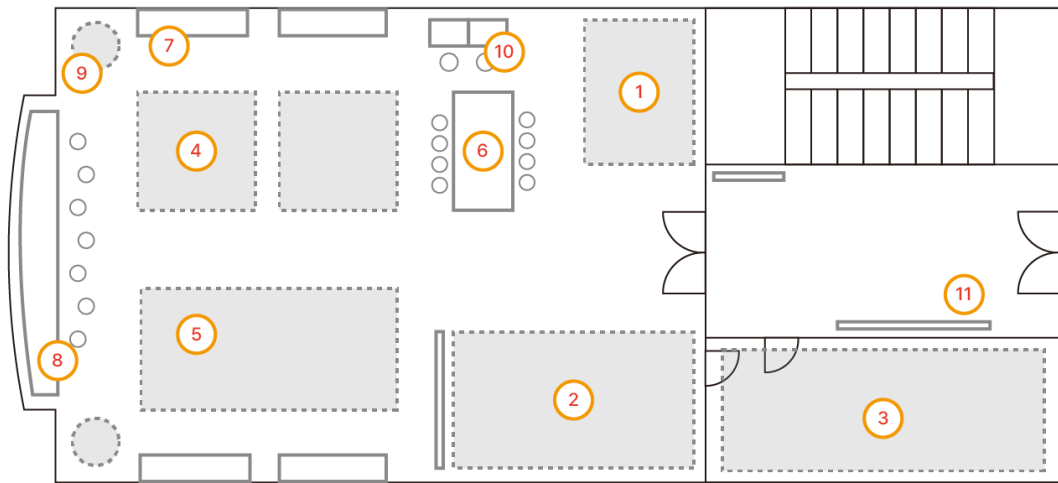
이는 전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이 불분명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어떤 공간이 될 것인지 컨셉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설문에서 알 수 있듯,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한 도서관의 역할은 ‘독서 공간’과 ‘자습 공간’이다. ‘조용하게 자습하고 싶어요’와 ‘편안하게 책을 읽고 싶어요’라는 요구가 둘 다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도서관은 두 개의 방향 모두를 고려해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 2. 공간 구성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구상한 설계를 간단히 제시하려고 한다.

위치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공간 구성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치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태하관을 기준으로 배치를 구상했다.



※ 위 도면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아이디어 소개만을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① 교사 데스크 | ② 수업 공간 | ③ 정보 도서관 | ④ 낮은 서가 | ⑤ 높은 서가 | ⑥ 자습 공간1 | ⑦ 자습 공간2 | ⑧ 전시 공간 | ⑨ 휴식 공간 | ⑩ 자료 검색대 | ⑪ 게시판

①② - 현재 도서관 구조에서는 교사 데스크 때문에 세미나실과 연결된 문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교사 데스크를 ① 위치로 옮겼다. 기존에 교사 데스크와 정보 검색대가 있던 ② 공간을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했다. 세미나실 문 옆 벽에 보드를 설치하고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하거나, 파티션 대신 큰 화이트보드를 놓아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수업이 없을 때는 자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 전교, 그리고 자습실까지 와이파이가 설치된 후 세미나실과 도서관의 정보검색대는 의미가 약해졌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인데, 이곳이 시청각 자료 열람 및 정보 검색과 더불어 메이커스 페이스의 기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정보 검색용 컴퓨터는 유료나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상 편집, 3D 모델링 같은 전문 프로그램이나 리눅스 운영 체제 같은 다양한 개발환경을 갖춘 컴퓨터가 있다면 학생들의 과제와 도전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④⑤ - 분리된 서고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폐쇄적이고 답답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 없애는 쪽을 택했

다. 교사 데스크가 있는 쪽(④)에는 3~4단의 낮은 서가를, 반대쪽(⑤)에는 높은 5단 서가를 놓으면 데스크에서 한눈에 보이는 구조가 될 것이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 낮은 서가에 신착자료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학교 특성상 장서 비율이 편향적이기 때문에 인문 관련을 ④에, 자연과학/공학 관련을 ⑤에 배치하면 이용도 정리도 쉬울 것이다. 대신 이렇게 되면 청구기호가 섞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표지가 필요하다. 낮은 서가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큐브형 안내 표시판을, 높은 서가에는 돌출형 분류 사인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p><a href="https://cdn.phose.co.kr/Shop/Product/30968/TOC83la7m8.jpg">https://cdn.phose.co.kr/Shop/Product/30968/TOC83la7m8.jpg</a></p>	 <p><a href="https://cdn.phose.co.kr/Shop/Product/13824/R05decNkm8.jpg">https://cdn.phose.co.kr/Shop/Product/13824/R05decNkm8.jpg</a></p>
큐브형 안내 표시판 예시	돌출형 서가 분류 사인

⑥⑦ -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습이었기 때문에 자습 공간의 확보도 중요했다. 지금은 서가가 놓여있거나 빈 공간인 ⑦ 창가에 바 테이블을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창가는 지금 도서관에서 제일 어두운 구역이기 때문에 자습공간을 마련하면서 조명을 설치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밝아질 것이다. 사서 선생님 데스크 앞 공간(⑥)에 6인~8인의 테이블을 놓으면 더 밝고 트인 분위기에서 자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수업 공간도 활용한다면 충분한 좌석을 확보할 수 있고, 선호하는 분위기에 따라 원하는 자리를 선택해 앉을 수 있다.



⑧ - 지금은 서고 가장 안쪽 벽면인 이 공간은 벽을 허물면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된다. 그래서 도서관의 특색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수논문집, 교지, 기출문제 등의 우리 학교 아카이브나 인기 도서, 추천 도서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또한 많이 이야기가 나온 '편안하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서가 앞에 가벼운 좌석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등받이가 없고 쿠션이 있는 스톨 의자를 놓으면 동선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⑨ - 설문에서 편안한 도서 열람 공간, 힐링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구석구석 남는 자투리 공간에 소파, 스탠드와 작은 테이블을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자투리 공간 활용은 책상과 서가가 많아 지루할 수 있는 도서관에 다양한 선을 추가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⑩ - 자료 검색대, 대출/반납 키오스크, 책 소독기 등을 교사 테이블 주변에 설치한다.

⑪ - 지금 게시판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다. 복도의 벽에 더 넓은 게시판을 설치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도서관 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속적인 도서관 발전을 위해 건의 사항, 불만 사항 등을 적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도 있다.

### 3. 도서관 경영

학교도서관은 크게 교수학습지원, 독서교육, 레크레이션 세 가지의 기능을 해야한다.<sup>[7]</sup> 현재 우리 학교의 도서관은 독서교육과 레크레이션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 학생들은 도서관 활용 수업에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 지금 도서관이 좁고 멀어서 반대한 학생들도 있었다. 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학생들은 대부분 도서관 활용 수업에 만족할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도서부가 없다. 도서부가 있으면 장서의 관리도 수월해지고 도서관 홍보의 기회가 많아진다. 또래상담부(한결)가 얼마 전 컴퓨터 홍보 차 진행한 ‘친구사랑캠페인’처럼 도서관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장려할 수 있다. 행사의 홍보 및 결과, 신착도서 소개, 인기 자료 소개 등을 만드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위 “공간 구성”의 ⑧이나 ⑩ 공간을 활용해 활동을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

운영 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불만과 의견은 이용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사서 선생님의 근무 시간으로 인해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늘릴 수 있다면 이용률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장서가 오래되었다는 불만이 많았다. 장서의 폐기 및 새로운 도서 구입이 필요하다.

## VI. 마치며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왔고, 위치 이전까지 고려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도움이 될까 싶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답답한, 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공간이 아니라 편안하게 책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sup>[1]</sup> IFLA/UNESCO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 (2015.6.)

<sup>[2]</sup> 송기호,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2021), p354-356

<sup>[3]</sup> 유·초·중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2013-2022.

[https://kess.kedi.re.kr/post/6670396?code=&words=&since=&until=&page=1&itemCode=04&menuId=m\\_02\\_04\\_03](https://kess.kedi.re.kr/post/6670396?code=&words=&since=&until=&page=1&itemCode=04&menuId=m_02_04_03)

<sup>[4]</sup> 광철완, 노영희. (2009).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183-196 에서 제시한 평가 지표 중 ‘학생 1인당 단행본 책 수(권)’의 평가 척도가 10 미만~20이상이다. 우리 학교의 1인당 장서 수인 89권은 가장 높은 척도인 20권을 훨씬 뛰어넘는다.

<sup>[5]</sup> 김진영, ‘도서관 리모델링 안내서’, 학교도서관저널 통권 72호

<sup>[6]</sup>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사례 모음」 - 학교도서관 공간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sup>[7]</sup> 박영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학교도서관 저널, 2020, 5pg